

북한 매체에서 100세 개인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현되는가?

김정은 시기 장수자 생일상 수여 보도의
시공간적 확대와 의료·행정적 관여의 가시화

이강민*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100세를 맞은 주민에게 생일상을 보내는 사례를 공식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보도한다. 이 보도에서 장수는 사회주의제도의 성과와 지도자의 은덕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며, 기사 내용은 이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서사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기사의 장수자 생일상 수여 사례를 조사하여 보도의 시계열적 특성과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수자 생일상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9년 이후 보도 건수와 수혜자 규모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수혜자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보도에 포착되는 시·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기사 구성에서는 의료일군과 지방일군의 관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도자 은덕과 감사·충성의 서사에 의료·행정적 현장 관여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이후 장수자를 식별하고 정치적 수혜자로 가시화하는 행정적 범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북한 공식매체가 개인의 장수와 생애를 체제 정당성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북한, 장수자, 생일상, 정치적 재현, 김정은 시기, 시계열적 특성, 공간적 분포, 의료·행정적 관여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서론

“우리 제도가 좋고 정책이 좋아 백살을 살았습니다.”¹⁾ 북한에서 100세 장수자의 사례를 보도하는 것을 보면 ‘제도가 좋아 오래 살았다’는 진술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 장수자는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을 넘어 체제와 연관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로 등장한다. 『로동신문』은 최고지도자가 100세를 맞이한 주민들에게 생일상을 보낸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기사는 장수의 비결로 체제의 우월성을 들며, 이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감사로 귀결된다. 또한 장수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가족, 이웃들에게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당부하고, 모두가 그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해당 서사는 생일상을 받은 100세 장수자의 존재가 국가 담론 속에서 일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재구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북한의 장수자 활용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가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나 보도되고,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장수자 생일상 보도의 시계열 및 지역 분포를 계량화해 구축하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현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구 집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UN 등 국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이루어져 왔다. 해당 연구들은 인구 통계나 구조, 그것에 기반한 기대 수명 관련 연구들로 요약될 수 있다.²⁾ 물론 보도의 100

1) 《우리 제도가 좋고 정책이 좋아 백살을 살았습니다》 보통강구역의 장수자로인이 터친 진정넘친 목소리, 『로동신문』, 2024년 6월 28일.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08년인구일제조사전국보고서』(평양: 중앙통계국, 2009); 이석,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세 장수자를 분석하는 것을 인구 통계 관련 연구로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것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100세 인구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점에 보도된 생일상 수혜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생일상 수여 보도는 특정 시점의 100세 인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적 의미를 지니지만, 기본적으로 통계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수자 개인에 대한 생일상 수여와 보도가 생명과 복리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가시화하고, 개인의 장수를 지도자의 은덕과 체제의 성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구정치(population politics)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동안 북한의 생일상 수여 현상 분석은 주로 언론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연합뉴스』 기사가 있는데³⁾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0세 생일상’을 받은 80명을 지역별로 분류해 평양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음을 제시한다. 그 밖에는 일부 국내 매체에서 북한에서 장수자에게 생일상을 준 것을 단신으로 보도하거나, 왜 수여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혜자 규모 등이 파편적으로 소개된 것이 있다.⁴⁾ 이는 현재까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고령자

연구시리즈 2011-11(2011),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2403; 최지영,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북한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0권 1호 (2017), 7-45; 강성현·이해정, “현안과 과제: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 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3-10 (2023), <https://www.hri.co.kr/kor/report/view/97717>;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Report 2023* (New York: UNFPA, 2023).

3) “[단독]北 장수촌은 평양... ‘100세 생일상’ 받은 노인 가장 많아,” 『연합뉴스』, 2017년 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0170500014>.

를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공식 인구통계 중 가장 최근인 2008년 자료 기준, 북한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약 2,400만 가운데 단 64명으로 나타난다.⁵⁾ 이는 해당 집단이 인구 구성에서 극히 제한적임을 나타내며, 북한 연 구에서 우선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희소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들을 꾸준히 조명했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 맥락에서 장수자는 고령 인 구라는 인구 통계적 범주이면서, 특정 세대를 상징하거나 국가 제도의 성과와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는 잠재적 상징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00세 장수자 생일상 보도에 기초해 수혜자의 성별, 시계열적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파악해 제시하고 도출

-
- 4) “북한에 100세 장수자 증가 추세,” 『통일뉴스』, 2001년 12월 3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53>; “北 선전매체가 ‘100세 장수자’ 소개하는 까닭은?,” 『DAILY NK』, 2006년 2월 1일, <https://www.dailynk.com/%E5%8C%97-%EC%84%A0%EC%A0%84%EB%A7%A4%EC%B2%B4%EA%B0%80-100%EC%84%B8-%EC%9E%A5%EC%88%98%EC%9E%90-%EC%86%8C%EA%B0%9C%ED%95%98/>; “북한 김정은, 100세 장수 할머니에게 생일상 보내,” 『경향신문』, 2019년 9월 12일, <https://www.khan.co.kr/article/201909121541001>; “北김정은, 100세 장수자에 생일상 주는 이유는[광화문 한통쉬],” 『이데일리』, 2023년 1월 14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35477720&mediaCodeNo=257>.
- 5) 구체적인 100세 이상 인구는 다음과 같다. 100~104세(54명), 105~109세(8명), 110세 이상(2명). 국가데이터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08년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인구일제조사, 2011년 4월 21일, <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재현되는 정치적 맥락을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100세 장수자 생일상 수여 사례를 수집했다. 각 사례에 대한 보도일, 성별, 거주 지역을 파악해 시계열적 변화와 수혜자의 성비, 도, 시·군 단위 공간적 분포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장수자 생일상 수여는 매년 꾸준히 보도되었으며,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다. 수혜자의 규모는 시·군별로 편차를 보였다. 한편, 같은 시기 수여 보도 빈도가 급증한 뒤 그 규모가 유지되면서 지속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고, 이는 수혜자가 확인되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보도 내용에서 장수자에 대한 의료·행정적 관여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를 특정한 정치적, 담론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사례가 더 식별되고 확대되었을 가능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100세 장수자에 대한 생일상 보도가 가지는 정치적 맥락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3장에서는 생일상 보도의 주요 서사 구조를 분석하여 장수자가 체제 안에서 수령의 은덕과 충성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이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변화와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고, 2019년 이후 나타나는 보도 확대 양상을 중앙의 지방에 대한 행정적 관여 확대 맥락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이후 결론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의미를 논한다.

2. 100세 장수자 생일상 수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상정하고 당을 부모로 위치시키는 가부장적인 정치 논리를 통해 정당성을 구축했다. 이 구조에서 국가는 사회적 생산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모 국가(parent-state)로 이해할 수 있다.⁶⁾ 이러한 가부장적 서사는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와 선물을 보호와 보살피는 행위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삶이나 건강, 장수와 같은 현상은 체제 과시 및 성과와 결합해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복지와 보호는 정책적 성과이자 정치적인 서사의 일부로 기능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작동한다.

일반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북한의 특징은 부모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인민의 어버이로서 수령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이는 한 장수자 생일상 보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살고 있어 무병장수를 누린다고 표현된다.⁷⁾

한편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도자의 행위는 단순한 정책의 집행을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정치적 의례의 형태로 반복되었을 때, 상징적 행위가 되어 권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⁸⁾ 이때 지도자가 선물을 수여하

6) Katherine Verdery, *What Was Socialism, and What Comes N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61-82.

7)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기쁨,” 『로동신문』, 2020년 7월 21일.

8) Lisa Wedeen, *Ambiguities of Domination: Politics, Rhetoric, and Symbols in Contemporary Syri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6-7.

거나 하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물질의 전달을 넘어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선물은 단순하게 재화를 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위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의미도 가진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물은 최고지도자와 북한 주민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 담론에서도 위와 같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 매체는 최고지도자의 보살핌과 은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인민의 삶과 복지가 지도자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것은 국가 정책의 성과를 지도자의 은덕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생일상을 수여한 것이 된다. 대표적인 것은 노력영웅 정춘실에게 김정일이 수여한 것이 있고,¹⁰⁾ 각종 대회 참가자나,¹¹⁾ 비전향 장기수,¹²⁾ 공로자¹³⁾ 등에

9) Avner Offer, "Between the Gift and the Market: The Economy of Regard," *The Economic History Review* 50, no. 3 (1997): 450-476.

10) 정춘실은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및 2중로력영웅으로 상업봉사활동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했다고 하여 김일성, 김정일의 관심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춘실운동'으로 명명되는 대중운동의 토대를 제공한 당사자이다. "사설 일군들은 정춘실동무를 따라배워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가 되자," 『로동신문』, 1991년 11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2중로력영웅 정춘실동무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생일상을 차려주시었다," 『로동신문』, 1991년 12월 30일.

11) "김정일동지께서 전국렬사가족대회에 참가하였던 104명의 련사가족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로동신문』, 1992년 10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대표들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6월 8일.

게도 보낸다. 이것은 생일상 자체가 최고지도자가 하사하는 선물이 되면서 그의 은덕을 강조하고 위계를 형성하며, 충성을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루는 100세 장수자에 대한 생일상 수여는 1992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02년의 『로동신문』 보도는¹⁴⁾ 근 10년간 많은 장수자가 생일상을 받았으며, 이 관행을 김정일이 시작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100살이 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들을 챙겨주는 지도자의 사랑임을 강조한다.¹⁵⁾

한편, 생일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적으로 100세 대상자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별된 장수를 축하하고 보도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그것을 국가 제도 및 최고지도자의 은덕, 그것에 대한 충성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과정은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한 생명권력(biopower)의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푸코는 생명권력을 근대에 이르러 국가가 인구를 관리하고 증진하며, 조절하는 새로운 권력의 형태로 설명했다. 생명권력은 개별 신체를 대상으로 그 유용성과 순응성을 높이는 ‘해부정치(anatomopolitics)’와 출생률·사망률·평균수명·건강·질병 등 인간에게 나타나는 생물학적 과정을 인구 수준에서 파악하고 조절하는 ‘생명정치

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전향장기수 리경찬동지에게 생일일흔둘상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05년 11월 16일; “위대한 삶의 품에서 아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통일애국투사,” 『로동신문』, 2017년 3월 22일.

13) “어버이사랑속에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로동신문』, 2016년 7월 22일.

14) “장수자들이 받아 안은 은정,” 『로동신문』, 2002년 9월 21일.

15) “당의 은정속에 꽃피는 백살장수자가정의 기쁨,” 『로동신문』, 2025년 12월 10일; “송림시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 『로동신문』, 2025년 12월 22일.

(biopolitics)’의 두 축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해부정치는 규율 권력을 통해 개별 신체를 순응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정치는 인구의 생물학적 삶을 통치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권력의 작동을 가리킨다.¹⁶⁾ 또한 푸코는 인구가 통치의 주요 목표로 부상하고, 정치경제학이 그 지식의 형태로, 안전장치가 주요한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근대적 통치성의 작동 방식을 논했다. 이때 통치는 인구 전체를 집합적 대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자를 대상으로 삼는 권력 형식과도 결합한다. 이러한 전체화와 개별화의 결합을 설명하는 개념이 사목권력(pastoral power)이다. 사목권력은 목자가 무리 전체를 돌보는 동시에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살피듯이, 전체에 대한 통치와 개별자에 대한 돌봄을 결합하는 권력 형식을 의미한다.¹⁷⁾ 사목권력의 관점은 통치가 단순한 강제와 규율뿐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형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도 보건·위생·출산·체육 등을 통한 전체 인구의 관리가 개별 주민의 신체와 일상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에 대한 통제와 개별 신체의 규율이 상호 결합했다.¹⁸⁾ 또한 보건과 치료에 대한 미담은 당과 수령의 애민적 돌봄으로 귀결되면서, 최고지도자가 전 인민과 개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라는 정치적 표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⁹⁾

16)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얇의 의지』, 이규현 옮김(파주: 나남, 2004).

17)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서울: 난장, 2011).

18) 박영자, “북한의 ‘생체정치(bio-politics)’: 신체 통제와 규율화를 중심으로,” 『현대 북한연구』 제7권 3호(2005), 97-149; 강진웅, “1950-1960년대 국가형성기 북한의 생명정치와 사회주의 주체 형성,” 『사회와역사』 제98호(2013), 155-189.

19) 한준희·이요한, “생명정치(biopolitics) 관점에서 본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담

이러한 관점에서 생일상 수여는 장수자라는 개인을 통해 그 가족, 이웃이 최고지도자의 은덕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주체에게 감사와 순응을 규범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매체에 보도하는 것은 보다 넓은 독자층에게 국가의 돌봄과 주민의 충성이라는 관계를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생일상 수여와 보도는 개별자를 체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규범적 메시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여 행위와 보도 자체는 개인의 신체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훈련·교정하는 전형적인 해부정치라기보다, 지도자의 은덕을 가시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사와 충성을 규범적 모형으로 제시하는 담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일상 수여를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푸코가 말한 생물학적 상태를 관리 가능한 범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생명정치와도 맞닿는다. 그러나 생일상 보도는 인구의 출생·사망을 직접 조절하거나 개인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통치라기보다, 장수자를 정치적 대상으로 식별·선별하고 그의 생명을 국가의 돌봄과 체제의 성과로 의미화하는 방식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민의 인구정치 논의는 장수자 생일상 보도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데 유용하다. 홍민은 인구정치를 인구의 증감과 이동에 관한 공식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를 통치 대상으로 구성하는 정치적 결정과 제도, 담론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술적 장치를 포괄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인구기술학(population

론,” 『한국과 세계』 제7권 4호(2025), 969-994.

technology)은 이러한 개입과 통제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술적 조치와 제도화의 차원으로 설명된다.²⁰⁾ 이에 본 연구는 홍민의 논의를 장수자 보도의 분석 초점에 맞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수자를 행정적으로 파악 가능한 대상으로 구성하고, 그의 생물학적 상태를 정치적 담론 속에 배치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점에서 장수자 생일상 보도는 장수자의 식별과 선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절차와 그의 생명을 지도자의 은덕 및 체제의 성과로 전환하는 담론이 결합한 인구정치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로동신문』 보도에 기초해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25년까지를 범위로 하며 관련 기사를 ‘장수자’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파악했다. 이후 기사를 바탕으로 보도 시기와 도, 시·군 단위의 장수자 거주지, 성별을 정리했으며, 254개 기사에서 277명의 수여자를 식별했다. 이 가운데 거주 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는 도 단위에서 1명, 시·군 단위에서 3명에 그쳐 전체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²¹⁾ 다만 본 연구는 특정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례가 검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분석에서 한계로 남았음을 미리 밝힌다.

20) 홍민, “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299-300.

21) 여기서 평양, 남포, 개성, 라선시는 하나의 도 수준으로 고려해 내부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별도의 도시로 처리했다.

3. 100세 장수자 생일상 수여 보도 분석

1) 장수자 생일상 수여 보도 기사의 기본 구성

생일상 보도는 대략 다음으로 구성된다. 먼저 100세 장수자가 탄생한 경사를 체제의 우월성으로 환원한다. 가령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하거나, “무병무탈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속에”라고 표현된다. 이어서 동과 인민반까지 구체적인 거주지와 성별, 이름 등 100살 장수자의 이력이 소개되며 최고지도자가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냈다고 서술한다. 생일상 수혜자는 평범한 노인인 자신을 챙겨준 최고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삶이 간단히 언급된다. 대체로 해방 전 망국노의 설움이 있었으나 김일성 덕에 조국이 해방되었고 비로소 보람찬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전개다. 수혜자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일에 헌신했으며, 연로보장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거나 혁명을 위한 자식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는 등 낙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힌다. 간혹 특정한 식습관이 있으면 같이 소개되기도 한다. 기사 말미에는 장수자가 축하하러 온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이 영광과 행복을 간직하고 대를 이어 체제에 헌신,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다 같이 그것을 다짐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이 다짐은 시의성을 반영해 “지방진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에 헌신해 나갈 결의,” “일터마다 증산투쟁, 절약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 제9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열의” 등으로 표현된다.²²⁾ 보도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다고 전제할 경우, 생일상 수여는 현장에서 장수자와 그 가족, 이웃 등 주변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고지도

자의 은덕과 그에 대한 감사·충성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공식매체에 보도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보다 넓은 독자층에 제시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사에서 반복되는 국가의 돌봄과 수혜자의 감사·충성 서사는 국가와 주민 사이에 기대되는 규범적 관계를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 자료 기반 생일상 수혜자와 실제 100세 인구 수치 대조

본격적인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앞서 해당 자료의 개연성을 점검하기 위해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 자료와 당시 『로동신문』의 생일상 수여 보도를 집계해 간단한 비교를 수행했다. 당시 인구총조사는 UNFPA 지원 아래 실시된 것으로, 현재까지 북한 인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인구는 약 2,400만 명이며, 그중 100세 인구는 총 40명으로 집계된다.²³⁾ 2007~2008년 동안 『로동신문』 관련 보도를 확인한 결과, 2007년에는 12명, 2008년에는 8명²⁴⁾ 등 총 20명이 생일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보도되지 않은 사례의 존재 가능성이거나 실제 생일 시점과의 차이, 연령 계산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도 사례의 규모는 인구총조사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100세 인구와 크게 괴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22) “당의 은정속에 꽃피는 백살장수자가정의 기쁨”; “송림시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

23) 국가테이터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08년인구일제조사전국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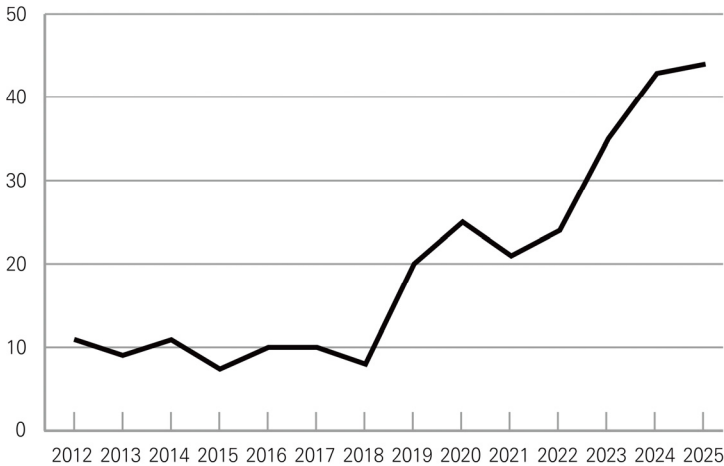
24) 2008년 수혜자 8명 중 2명은 10월 1일 이후에 생일상을 받았다.

낮은 수치의 범위에 있다. 따라서 해당 비교는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구축된 본 연구의 생일상 수여 사례 수가 북한의 100세 인구 규모보다 과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보도가 선전 목적 아래 이뤄지고 있더라도 매체에 과도하게 확대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기초적인 점점으로 볼 수 있다.

3) 장수자 생일상 수여의 시계열 추이

본격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식별된 생일상을 수여받은 100세 장수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관련 보도가 월 1회에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2018년까지 10명 내외 규모를 보이고 있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것

<그림 1> 『로동신문』 보도 기반 생일상을 받은 100세 장수자 수(2012~2025)



자료: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식별된다는 것이다. 해당 추세는 잠시 주춤한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전후에 나타난 수혜자 수의 소폭 감소 경향은 당시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보이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2025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2018년까지는 연간 10명 내외가 생일상을 받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과거 김정일 시기 일부(2007~2008)와 유사한 규모를 보였다. 한편, 2019년 이후 급증세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나 생물학적 요인을 고려하면 장수자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단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우선 장수자 생일상 사례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100세 인구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많이 이뤄질 수 없음에도 지속적인 언급을 통해 체제 우월성, 최고지도자의 은정과 그것에 대한 감사, 충성의 서사를 드러내고자 했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이후의 급증세와 그 규모 유지는 다른 추가적 해석의 필요성을 남기는 발견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논할 것이다.

4) 생일상 수혜자의 성별 분포

이어서 <표 1>은 생일상을 수여받은 100세 장수자를 성별로 구

<표 1> 생일상 수여 장수자 성별 분포

남	여	미상
12(4.33%)	261(94.22%)	4

자료: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분한 것이다. 관련 보도의 내용 특성상 대부분 성별을 구분할 수 있었으나, ‘전쟁로병’으로 표기된 경우가 간혹 있어 해당 건수는 미상으로 처리했다.

분석 기간 수혜자의 94%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에서도 100세 남성은 없었다. 또한 2007~2008년간 『로동신문』에서 생일상 역시 모두 여성이 받았는데 위의 결과는 이러한 맥락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한민국의 10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비율 역시 약 84%를 차지한다.²⁵⁾ 다만 본 연구의 생일상 수여 자료는 각 시점의 100세 대상자를 합한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타국의 100세 이상 인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개념상 차이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도 초고령층에서 여성 우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선전적 목적으로 장수자 사례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시킨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즉, 현실을 바탕으로 약간의 과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시된 조건 아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5) 2026년 1월 기준 100세 이상 인구 8,787명 중 여성은 7,336명이다.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주민등록 인구통계, 접속일 2026년 3월 8일, <https://jumin.mois.go.kr/#>.

5) 수여 규모의 지역별 분포

(1) 도별 분포

〈표 2〉는 도 단위의 100세 장수자 생일상 수여 빈도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평안북도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황해북도, 함경북도, 황해남도의 순으로 이어졌다. 평양시와 남포시, 개성시 등을 단일한 도시로 집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해당 도시들은 내부 구역에서도 비교적 고른 분포가 나타났다. 평양은 각각 락랑·서성·중구역 4명, 만경대구역 3명, 대성·선교·보통강구역 및 강동군 2명 등이었고, 남포는 천리마·항구구역 및 룡강군 3명, 와우도·강서구역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성시도 시내와 개풍구역이 4명, 장풍군과 판문구역에 1명씩 있었으며, 라선시도 각각 라진구역과 선봉구역에 2명씩 100세 장수자가 거주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도별 분포를 보면 편차가 확인되어 100세 장수자 생일상 수여 빈도가 지역 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해당 차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분포 양상이 존재함을 보여주나 본 자료만으로는 인구 규모의 영향인지, 보도나 대상 선정 과정의 결과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지역별 편차를 세부적으로 살피기 위해 시·군별 분

〈표 2〉 도별 100세 장수자 생일상 수여 빈도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량강도
29	17	48	25	33	15	8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라선시	개성시	남포시	미상
29	32	13	4	10	13	1

자료: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포를 이어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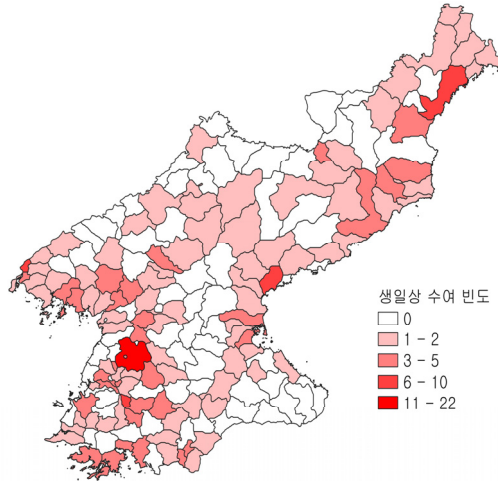
(2) 시·군별 분포

시·군별 분포를 보면 지역 분류에서 발생한 미상 3건 제외 총 274명의 100세 장수자가 생일상을 받았으며, 지역별 평균은 약 1.6명, 중간값은 1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군이 1명 이하의 장수자가 생일상을 받았으며 상위 몇 개 지역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분포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수여자가 0명인 지역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1명인 곳 역시 약 26%로 이들을 합치면 총 66%가량 된다. 상위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된 평양시, 남포시, 개성시를 비롯해, 신의주·사리원시(각 10명), 함흥·청진시(각 9명), 순천시(5명) 등으로 나타난다. 해당 지역들은 산업이나 각 도 소재지 등으로 지방에서 정치·경제 중심지인 곳으로 의료나 보건 등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빈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경제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라 중앙매체에서 보도 대상으로 우선 선택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이는 향후 인구 구조 자료나, 인프라 관련 지표 등과 연계해 분석할 수 있어 보인다.

〈그림 2〉는 북한 시·군별 생일상 수혜자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다. 앞서 도 단위로 간주한 평양시와 남포시, 라선시 및 개성시 등을 식별된 하위 구역을 바탕으로 나누어서 표시했다.²⁶⁾ 차강도와 량강도의

26) 국가별 행정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Global Administrative Areas(GADM) 자료를 바탕으로 QGIS를 통해 구현했다. 다만 평양시는 GADM이 제공하는 행정구역 자료가 평양, 중, 은정, 강동, 강남으로만 구분되고 있어 그것을 감안해 표시했다. 또한 승호군도 행정구역상 평양에 합쳐져 있어 여기서는 해당 1건을 평양에 포함했다. Global Administrative Areas, “GADM Maps and

〈그림 2〉 시·군별 생일상 수혜자 분포



자료: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경지역, 북한 내륙 및 강원도 지역 등 산악 지역에서 수혜자가 0명인 것이 비교적 두드러진다. 지도상에 나타난 공간적 패턴은 전국적으로 생일상 수여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을 잘 드러낸다. 일부 주요 도시는 유독 짙게 나타났으며, 상당수 지역이 관찰 기간 낮은 빈도를 보이거나 관측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생일상을 받는 100세 장수자의 분포가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서 균일하지 않고 지역별 편차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직접적인 인과까지 주장하지는 않으며 도출된 공간적 분포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해당 결과는 북한이 장수자 생일상 보도를 통해 사회주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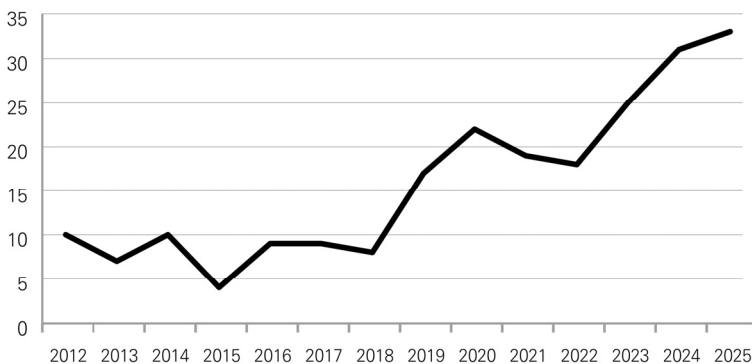
Data,” 접속일 2026년 3월 7일, <https://gadm.org>.

도의 우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 지역적이지는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평양을 비롯해 청진, 함흥, 신의주 등 대도시 중심의 생일상 수여 분포 결과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골라 보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그림 2〉의 결과는 앞서 지속해서 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보도가 선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더라도 현실을 크게 왜곡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3) 생일상 수혜자 거주 시·군 수의 변화

〈그림 3〉은 매년 생일상을 받은 100세 장수자가 거주하는 시·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2019년 이후 대상이 되는 지역의 수가 급증했다가 코로나-19를 전후로 약간 감소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패턴이 관측된다. 2012년에는 10곳에서만 장수자 생일상이 보도되었지만 2025년에는 35곳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림 3〉 연도별 생일상 수혜자 거주 시·군 수



자료: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해당 사례가 다뤄졌다. 이것은 생일상 수혜자 수의 증가가 기존에 이뤄지던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적 확장은 물론 실제 고령 인구 분포가 점차 넓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앙의 지방에 대한 행정적 관리 범위가 확대되었거나, 정책적 목표 아래 보도 대상 지역이 점차 다양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목적 아래 지역별로 장수자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식별함에 따라 중앙 매체에 더 소개하게 되었을 수 있다.

6) 종합 해석

이상의 결과는 북한이 매체에서 100세 장수자를 꾸준히 보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에서 100세가 그리 큰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한 선전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대상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19년 이후 관련 보도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화는 기사 구성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전의 보도는 장수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따른 성취로 설명하면서도, 그 작동 방식은 비교적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의 기사에서는 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감사, 장수자 개인의 근면한 생애, 가족과 후대를 통한 충성의 계승 강조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2019년 8월 20일 보도에서 장수자가 “병이 날세라 의사들이 찾아와 검진도 해주고 무병장수하라고 모두가 돌보아주는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 말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²⁷⁾ 이후 의료진의 방문이나, 정기검진, 진료, 건강관리, 관심이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 보도

에서는 “이들이 멀다하고 담당의사선생이 찾아와” 검진해주고 보약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²⁸⁾ 이러한 의료적 관여에 관한 언급은 2019년에는 6건에서 2020년에는 14건까지 증가해 해당 연도 전체 관련 보도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후 그 수는 2021년 7건, 2022년 8건으로 감소하고, 2025년에는 2건까지 줄어들었지만, 2022년부터는 지방 당·정권 기관 일군의 방문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기사 구성에 본격적으로 추가 되는 것이 확인된다.

2022년 5월 19일 서흥군 장수자 보도에서는 해당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형편”을 알아보았다고 서술한다.²⁹⁾ 이후 기사에서는 지방일군이 단순히 생일 축하에만 그치지 않고 당의 정책과 은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답을 강조하는 내용도 나타난다. 예컨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에는 개성시 구역당위원회 일군이 장수자 가정을 방문해 “최대비상방역상황에서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중대조치들이 적극 실행”되고 있다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당의 은덕에 보답할 것을 강조한다.³⁰⁾

이러한 지방일군의 방문은 2022년 23개 기사 중 14개에서 식별된 뒤, 이후 2023년 29건, 2024년 35건, 2025년 3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빈도가 증가할 때 장수자 가정을 찾아 생활 형편을 알아보는 등의 언

27)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구성시의 백살장수자,” 『로동신문』, 2019년 8월 20일.

28)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기쁨”.

29) “서흥군의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뜨거운 정,” 『로동신문』, 2022년 5월 19일.

30) “개성시의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환희와 걱정,” 『로동신문』, 2022년 6월 5일.

〈표 3〉 생일상 수여 보도에서 의료적 관여 및 지방일군 방문 언급 빈도

연도	전체 생일상 보도	의료적 관여 언급	지방일군 방문 언급
2019	18	6	0
2020	20	14	0
2021	18	7	0
2022	23	8	14
2023	33	5	29
2024	38	6	35
2025	40	2	38

자료: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급은 ‘축하해주었다’로 간소화된다. 그럼에도 2022년 이후 언급되기 시작한 일군의 방문과 축하는 장수자 보도에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정형화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장수의 원인을 추상적인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만 귀속하던 기존의 보도 방식이 더 구체적인 행위자와 절차를 통한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의료적 관여에 관한 언급은 방문, 검진, 치료, 건강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가시화했다. 이어서 생일상 전달 방식을 지방일군의 현장 방문을 통한 축하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최고지도자의 생일상이 행정조직에 의해 전달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후기 장수자 보도의 변화는 기존의 체제우월성·지도자 은정·감사와 충성의 서사에 더해 의료 인력의 돌봄과 지방일군의 현장 방문의 절차가 내용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수자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국가의 의료적 돌봄과 행정적 관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

례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토론

이상의 분석은 두 가지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첫 번째는 장수자 생일상 보도는 체제 우월성·지도자 은정·감사와 충성의 서사를 전달하는 정치적 보도이지만, 수혜자의 성비와 지역별 분포에 일정한 불균등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허구라기보다 실제 사례를 선별하여 정치적으로 재구성한 보도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2019년 이후 보도 건수와 수혜 지역이 동시에 확대된 현상은 단순한 연도별 변동을 넘어, 장수자를 식별하고 중앙 매체에 가시화하는 행정적 범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논한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는 당시 정치·사회적 맥락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 강화, 무상의료의 후퇴와 보건의료의 재정당화, 세대적 불안과 충성의 재생산을 제시한다.

(1) 장수자 보도의 현실 반영 가능성

먼저 장수자 생일상 보도를 통한 정치적 선전이 현실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권위주의 선전이 단순히 허위를 만들어 활용하지 않고 그럴듯하고 수신자가 받아들일 만한 신호를 만든다는 논리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구리예프와 트레이스먼(Guriev & Treisman)³¹⁾의 정보 독재(informational autocracy)에 관한

31) 물론 저자는 북한을 시리아와 함께 현대적 정보독재보다는 구식 폭력, 이념형 독재가 남아 있는 사례로 언급한다. 본 연구는 북한을 정보독재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저자의 논의를 통해 권위주의 매체가 실제 사건과 선별된 사례를 바탕으로 통치 성과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

논의에 따르면 대중은 생활 수준, 국가 선전, 매체의 신호 등을 통해 지도자의 유능함을 추론한다. 이때 선전은 지도자의 유능함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비용이 드는 행위이면서 그 내용은 대중이 관찰할 수 있는 생활 수준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가령 X 도시의 y 인물이 100세가 되어 생일상을 받았다는 보도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가깝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보도를 허구에 기반해 보도할 경우 해당 지역의 가족, 이웃, 간부 등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전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앞서 언급한 긴장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수자 생일상 보도는 우리가 보통 간주하는 북한 매체의 허구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례를 선별하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이후의 급증 현상은 갑자기 허구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급증세가 잠시 주춤했던 것과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은 단순히 허구에 기반한 선전 증가로 간주하지 않고 일정한 현실에 기반한 인구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힌텔만(Axel C. Hüntelmann)은 20세기 인구 관련 사료를 읽을 때 그대로 믿지 말고 권력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주목해야 함을 말한다.³²⁾ 즉, 인구의 현실과 그것을 권력이 대중에 어떻

고자 한다. Sergei Guriev and Daniel Treisman, *How Modern Dictators Survive: An Informational Theory of the New Authoritarianism*, NBER Working Paper No. 21136 (2015); Sergei Guriev and Daniel Treisman, "Informational Autocra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 no. 4 (2019): 100-127.

32) Axel C. Hüntelmann, "Statistics, Nationhood, and the State," in *Twentieth Century Population Thinking: A Critical Reader of Primary Sources*, eds. Regula

게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기 소련이 인구 통계 검열을 통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은 감추고 좋은 것은 부각했다는 사례를 다룬 러빗(Jessica Lovett)의 연구가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³³⁾

물론 앞서 언급했듯 장수자 보도는 각 시점의 독립적인 것으로 그것이 인구 통계적 성격을 직접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보도 빈도를 집계했을 때 발견된 급증 추세는 이 보도가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의 정치적 서사에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할 때, 2019년 이후 보도 확대는 단순한 허구적 선전의 증가보다 실제 대상을 식별하고 보도하는 행정적 범위의 변화와 관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행정적 식별과 관여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보건의료 정당화 방식의 변화, 세대적 불안을 보조적 맥락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적 식별과 중앙-지방 관여 확대 가능성

우선 2019년 이후 장수자 생일상 보도의 증가는 각 지역에서 대상을 식별해 중앙에 보고하고, 지방 관료들이 생일상을 전달하는 행정적 경로가 확대되었을 가능성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장수자가 중앙매체에 보도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및 상부 보고, 수여 결정, 현장 전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Argast et al. (New York: Routledge, 2015), 11-36.

33) Jessica Lovett, "Turning Science into Fiction? Censoring Population Research in the Soviet Union, 1964-1982,"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33 (2024): 192-211.

2019년 이후 보도 건수와 장수자가 속한 지역이 같이 증가한 현상은 실제 장수인구의 단기간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에 존재하는 대상자를 중앙이 정치적 수혜자로 식별하고 가시화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후기 기사에서 지방일군은 단순한 전달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이들은 장수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와 생활 형편을 확인하는 등 현황을 ‘료해’하고, 당의 정책과 은덕을 설명하며, 가족들에게 충성과 생산활동을 통한 보답을 당부하는 존재로도 등장한다. 이러한 서술은 최고지도자의 생일상 수여라는 중앙의 상징적 행위가 지방조직의 방문과 현장 확인을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장수자 생일상 보도는 최고지도자의 은덕, 지방조직의 관여, 수혜자와 가족의 감사 및 보답 서사를 함께 배열함으로써 장수자의 개인적 생일을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사건으로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통치 맥락에서 중앙의 지방 관여가 확대된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별도의 연구에서 확인되는 2019년 이후 고위 간부의 지방 시찰(현지료해) 빈도의 증가는 중앙이 지역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적 정황이 된다.³⁴⁾ 장수자 생일상 보도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의 개인을 발굴하고 중앙 정치의 수혜자로 편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⁵⁾

34) 이강민, “북한 엘리트의 차등적 ‘현지료해’: 지역 단위 통계자료와 분석(2011-2024),” 『통일정책연구』 제34권 2호(2025), 87-116.

35) 다만 현지료해 증가와 장수자 보도 확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양자의 시기적 중첩은 중앙-지방 간 정보수집과 현장 관여가 강화된 공통된 행정적 환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결과를 북한의 행정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증거로 곧바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후기 기사에서 의료 인력과 지방일군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실제 관여가 확대된 결과일 수 있지만, 이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매체가 더 상세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보도량과 지역 범위의 확대, 의료적 돌봄의 등장, 지방일군 방문의 정형화가 연속 나타났다는 것은 장수자 생일상 보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행정·정치적 실천으로 정교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행정적 관여의 가시화는 2019년 이후 북한이 처한 통치·정책 환경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제재의 장기화를 전제로 정면돌파전과 자력갱생을 강조하였으며, 외부 자원의 유입보다 내부 자원의 동원과 지역 단위의 책임 있는 집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³⁶⁾ 이러한 흐름은 2019년을 전후해 이뤄진 지역 균형발전, 시·군 강화와 농촌과 지방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³⁷⁾ 자원이 제한된 조건에서 중앙이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울수록, 지방조직을 통해 특정 주민의 생활 형편을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지원하며 그 과정을 정치적으로 가시화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 장수자를 식별하고 의료·행정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의 보도는 이러한 통치 환경 속에서

3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37) “도들사이의 경쟁열풍으로 나라의 전반적,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3월 16일; 임을출,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통일과법률』 제50호(2022), 3-31; 최은주, “김정은 시대 시·군 강화노선의 등장과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2월호, 46-59, <https://www.kdi.re.kr/research/monNorth?year=2023>.

중앙의 관심과 지방조직의 집행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수자의 생명을 직접 연장하거나 장수 인구를 조절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장수자를 행정적으로 식별하고 국가의 관여 대상으로 구성하는 인구기술의 확대에 가깝다. 푸코적 의미에서 생명권력과 접점은 바로 이러한 생물학적 상태의 행정적 가시화에 있으며, 본 연구의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그 가시화가 공식매체를 통해 정치적 성과로 전환되는 인구기술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3) 2019년 이후 보도 확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이러한 행정적 관여 확대가 어떠한 정치적 담론과 정책 환경 속에서 촉진되었는지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보건 의료 정당화 방식의 변화, 세대적 위기와 관련된 후속 설명을 통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①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수혜의 개인화

첫째는 김정은 시기 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주민 생활 향상과 관련된 언명이나 조치들이 북한 매체에서 빈번히 조명되어 온 사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 시기 당의 지도 사상이자 집권 정당을 부여하는 근거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들 수 있다. 2012년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밝힌다.³⁸⁾ 이어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서문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이라 바꾸고, 2019년 4월 최고인민회

38)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결정서 주체101(2012)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의에서는 헌법 3조에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시했다. 이어서 2021년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 전서”라고 정식화되었다.³⁹⁾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 말한다.⁴⁰⁾ 이러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초기 인민 생활 향상 강조 논리에서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식 인민 친화 담론으로 공식화됨으로써 통치 전략이자 사회통합 전략이 되었다. 그 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 되면서 김정은의 통치 전략으로 완성된다.⁴¹⁾

특히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방법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⁴²⁾ 이 점을 고려할 때, 2019년을 기점으로 한 생일상 보도 확대는 이러한 담론적 환경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인민대중제일주의 관련 논리가 정교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매체가 인민을 호명하는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100세 장수자 생일상 보도 역시 해당 흐름 속에서 등장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39) 김효은,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42-43.

4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41) 김효은,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43-44.

42)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② 무상의료 후퇴와 보건의료의 재정당화

두 번째는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국가 담론에서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장수자라고 하는 개인의 보건적 성취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다. 한 외(Han et al.)는⁴³⁾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가 무상치료제의 기능 부전을 심화시켰고 이를 공식 담론에서 점차 제거했다고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로동신문』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언급이 2015~2018년 연 53~63건에서, 2019년 이후 30건, 13건, 5건 등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0건이 되었음을 제시한다. 한편, 해당 논문은 무상치료제가 사라지는 중에도 담당의사제와 예방의학 관련 언급은 코로나 시기 오히려 더 증가했거나 유지되었음을 같이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무상의료제도가 사라지는 속에서 그것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담론으로 보건과 관련된 다른 언급이 활용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맥락은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옹호, 보건일군의 정성과 자기희생, 전문성 담론이 강화되는 양상을 제시한 김소연⁴⁴⁾의 논의와 유사하다. 김소연은 해당 담론의 강조 양상이 김정은 시기 무상치료제가 실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 아래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이후 장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여 관련 언급이 식별됨을 밝혔다. 이것은 2020년 이후 감소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지방일군의 방문과 축하가 새로운 정형적 요소로 등장하였다. 두 요소가 직

43) Joon Hee Han et al., "What Silence Reveals: The Quiet Abandonment of Free Health Care in North Korea," *BMJ Global Health* 10, no. 9 (2025).

44) 김소연, "북한 '보건일군'의 역할과 역할정체성 연구: 공식-비공식 교차 속 변화와 재구성"(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접 대체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국가의 보호 기능이 무상 의료라는 보편적 제도보다 의료일군과 지방조직의 관여를 통해 재현되는 방향으로 보도 구성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당 맥락에서 장수자 보도의 증가는 보건적 성취의 맥락에서 보편적 보건의료 보장에 대한 공식 담론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가가 의료·행정적으로 관여해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상징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③ 세대적 불안과 충성의 재생산

마지막으로 장수자 보도는 북한이 직면한 세대적 불안과 관련해서 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외부문화 유입,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의 현상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해 왔다.⁴⁵⁾ 이러한 환경에서 장수자는 여러 세대의 지도자 아래에서 살아오며 체제의 은덕을 경험한 인물로 제시되고, 자신의 장수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당의 보살핌, 성실한 노동과 충성의 결과로 설명한다.

45)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구 위기 작동에 대해 다룬 것은 Jooyung Lee, “The Shadow of Low Birth Rate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38 North*, March 7, 2025, <https://www.38north.org/2025/03/the-shadow-of-low-birth-rate-in-north-korea-and-its-implications-for-the-economy/> 참조;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반사회주의 확산 차단에 관한 것은 이규창,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KINU Online Series CO 23-06(2023),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429&category=53&nav_code=mai1674786581 참조.

또한 장수자의 생애는 개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의료일군, 지방 일군,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온 가족과 마을사람들, 의료일군들의 관심속에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⁴⁶⁾ 혹은 “온 가족과 이웃들, 의료일군들의 관심속에 장수”⁴⁷⁾하고 있다 등으로 표현된다. 이때 장수자는 자손들에게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 성실한 노동, 생산과 국방을 통한 보답을 당부하는 인물로 등장한다.⁴⁸⁾ 이러한 서사는 장수자의 생애를 통해 집단주의적 사회질서의 우월성과 충성의 세대 간 계승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장수자 생일상 수여 보도에서 발견된 급증 현상을 행정적 관여 증가 가능성 관점에서 논하고 정치·사회적 맥락을 보완적으로 살펴해보았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생일상 수여 보도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행정·선전 전략의 결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수자 재현의 확대는 지방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확대, 인민대중제일주의 강화, 보건의담론의 재구성, 사회적 결속에 대한 요구 등 보다 넓은 통치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수자 보도의 변화는 이러한 상위 정책과 담론의 변화를 직접 증명한다기보다, 여러 행정·선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6) “동림군의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로동신문』, 2019년 11월 23일.

47) “강령땅의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 『로동신문』, 2019년 12월 5일.

48) 가령 한 보도에서 “하기에 실험을 통해 어느 사회가 진정한 인민의 사회인가를 폐부로 절감한 할머니는 자손들에게 몸과 마음 다 바쳐 이 제도를 더 잘 받들고 굳건히 지켜가라고 당부하군 한다”고 언급된다.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기쁨”.

4. 결론

본 연구는 『로동신문』의 100세 장수자 생일상 수여 보도를 단순한 미담이나 보건의적 성취의 일회적 사례로 보지 않고, 개인의 생애와 장수를 체제와 수령의 은덕, 제도 우월성, 대를 잇는 충성 재현의 선전적 서사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론적으로 생일상 수여 보도는 장수라는 생물학적 상태가 행정적으로 식별되고 국가의 돌봄과 체제 성과로 의미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실제 수여는 특정 장수자와 가족, 주변 공동체에 지도자의 은덕을 전달하는 현장적 실천이며, 공식매체의 보도는 이러한 관계를 보다 넓은 독자층에 확산하는 담론적 실천이다. 다만 이는 인구를 조절하는 전형적인 생체정치나 개인의 신체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규율하는 해부정치로 바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핵심은 장수자를 식별하고 국가의 관여 대상으로 구성한 뒤 그 생명을 정치적으로 기술하는 작동에 있다.

연구를 위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기사에서 생일상 수여 사실이 명시된 사례를 확인해 시공간적 분포를 제시하고 분석했다. 본 작업은 장수자 보도를 개별 사례로만 나열하지 않고, 북한의 매체가 특정 개인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구성하려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장수자 보도는 수령의 사랑과 은덕,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과 그것에 대한 감사, 가족과 후대의 충성이라는 반복적 서사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장수자 개인은 독립적 삶의 주체라기보다, 수령의 보살핌을 체현한 존재가 되고, 후대의 충성을 독려하는 상징적 존재로 재현된다. 생일상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가족을 비롯한 장수자 주변인의 충성 결의는 개인의 성취를 체제에 대

한 정치적 감사와 충성 서사로 전환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해당 맥락에서 장수자 보도는 북한이 개인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과 충성의 관계를 재현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 결과는 해당 보도가 완전히 허구에 기반한 선전만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시계열적 증감과 지역별 편차, 실질 인구센서스 자료와의 대조 등을 통해 부연된다. 이것은 북한의 선전이 현실과 무관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구구조나 지역별 사정 등과 결합해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일상 보도는 북한의 선전 담론을 분석하는 자료이기도 하면서, 이 담론이 어떤 현실적 조건 아래 선택되고 조직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간접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2019년 이후 사례의 증가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본 연구는 이를 관련 기사 보도 구성의 변화와 연계해 중앙의 지방에 대한 행정적 관여를 주요 설명 가능성으로 논했다. 이어 이를 보완할 당시 정치·사회적 맥락을 인민대중제일주의, 의료 담론의 재구성, 세대적 불안으로 같이 제시했다. 다만 본 연구가 논한 해석은 자료 구축 결과에서 나타난 시계열적 단절을 설명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장수자 생일상 보도의 변화가 독립적인 국가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례는 김정은 시기 국가의 통치 기조와 지방 행정에 대한 관여, 보건·복지 및 충성 담론의 변화가 개별 행정·선전 영역에 투영된 한 단면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는 다른 복지·보건·표창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장수자 보도에 국한된 것인지, 보다 광범위한 행정·담론적 재편의 일부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보도

를 기반으로 100세 장수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인의 정치적 재
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투고: 2026.06.30. / 수정: 2026.08.03. / 채택: 2026.08.06.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2009.

2) 기타 자료

“강령땅의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 『로동신문』, 2019년 12월 5일.

“개성시의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환희와 걱정.” 『로동신문』, 2022년 6월 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대표들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6월 8일.

“김정일동지께서 전국렬사가족대회에 참가하였던 104명의 련사가족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로동신문』, 1992년 10월 6일.

“당의 은정속에 꽃피는 백살장수자가정의 기쁨.” 『로동신문』, 2025년 12월 10일.

“도들사이의 경쟁열풍으로 나라의 전반적,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3월 16일.

“동림군의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로동신문』, 2019년 11월 23일.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기쁨.” 『로동신문』, 2020년 7월 21일.

“사설 일군들은 정춘실동무를 따라배워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가 되자.” 『로동신문』, 1991년 11월 23일.

“서흥군의 백살장수자가정에 넘치는 뜨거운 정.” 『로동신문』, 2022년 5월 19일.

“송림시 백살장수자가정이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 『로동신문』, 2025년 12월 22일.

“아버이사랑속에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로동신문』, 2016년 7월 22일.

“《우리 제도가 좋고 정책이 좋아 백살을 살았습니다》 보통강구역의 장수자로인이 터친 진정넉친 목소리.” 『로동신문』, 2024년 6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전향장기수 리경찬동지에게 생일일흔뉘섯상을 보내시
 였다.” 『로동신문』, 2005년 11월 16일.

“위대한 삶의 품에서 아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통일애국투사.” 『로동신문』, 2017년 3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2중로력영웅 정춘실동무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생일상을 차려주
 시였다.” 『로동신문』, 1991년 12월 30일.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구성시의 백살장수자.” 『로동신문』, 2019년 8월 20일.

“장수자들이 받아 안은 은정.” 『로동신문』, 2002년 9월 21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결정서 주체101(2012)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푸코, 미셸. 『성의 역사 1: 얇의 의지』. 이규현 옮김. 파주: 나남, 2004.

푸코, 미셸.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심세광·전혜리·조성
 은 옮김. 서울: 난장, 2011.

2) 논문

강진웅. “1950-1960년대 국가형성기 북한의 생명정치와 사회주의 주체 형성.” 『사회와
 역사』 제98집(2013), 155-189.

김소연. “북한 ‘보건일군’의 역할과 역할정체성 연구: 공식-비공식 교차 속 변화와 재구
 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김효은.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2021),

31-67.

박영자. “북한의 ‘생체정치(bio-politics)’: 신체 통제와 규율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 연구』 제7권 3호(2005), 97-149.

이강민. “북한 엘리트의 차등적 ‘현지료해’: 지역 단위 통계자료와 분석(2011-2024).” 『통일정책연구』 제34권 2호(2025), 87-116.

임을출.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통일과법률』 제50호 (2022), 3-31.

최지영.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북한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0권 1호(2017), 7-45.

한준희·이요한. “생명정치(biopoltics) 관점에서 본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담론.” 『한국과 세계』 제7권 4호(2025), 969-994.

홍민. “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297-334.

3) 기타 자료

강성현·이해정. “현안과 과제: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 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3-10, 2023, <https://www.hri.co.kr/kor/report/view/97717>.

국가데이터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08년인구일제조사전국보고서.” 인구일제 조사. 2011년 4월 21일. <https://kosis.kr/bukhan/index/index.do>.

“[단독]北 장수촌은 평양… ‘100세 생일상’ 받은 노인 가장 많아.” 『연합뉴스』, 2017년 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0170500014>.

“北김정은, 100세 장수자에 생일상 주는 이유는[평화문 한통속].” 『이데일리』, 2023년 1월 14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01272646635477720&mediaCodeNo=257>.

“北 선전매체가 ‘100세 장수자’ 소개하는 까닭은?” 『DAILY NK』, 2006년 2월 1일. <https://www.dailynk.com/%E5%8C%97-%EC%84%A0%EC%A0%84%EB%A7%A4%EC%B2%B4%EA%B0%80-100%EC%84%B8-%EC%9E%A5%EC%88%98%EC%9E%90-%EC%86%8C%EA%B0%9C%ED>

%95%98/.

“북한 김정은, 100세 장수 할머니에게 생일상 보내.” 『경향신문』, 2019년 9월 12일.

<https://www.khan.co.kr/article/201909121541001>.

“북한에 100세 장수자 증가 추세.” 『통일뉴스』, 2001년 12월 3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53>.

이규창.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통일

연구원. KINU Online Series CO 23-06, 2023.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429&category=53&nav_code=mai1674786581.

이석.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1-11, 2011.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2403.

최은주. “김정은 시대 시·군강화노선의 등장과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 리뷰』 2023년 12월호, 46-59, <https://www.kdi.re.kr/research/monNorth?year=2023>.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3. 국외 자료

1) 단행본

Hüntelmann, Axel C. “Statistics, Nationhood, and the State.” In *Twentieth Century Population Thinking: A Critical Reader of Primary Sources*, edited by Regula Argast et al., 11-36. New York: Routledge, 2015.

Verdery, Katherine. *What Was Socialism, and What Comes N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Wedeen, Lisa. *Ambiguities of Domination: Politics, Rhetoric, and Symbols in Contemporary Syri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 논문

- Guriev, Sergei, and Daniel Treisman. "How Modern Dictators Survive: An Informational Theory of the New Authoritarianism," *NBER Working Paper* No. 21136(2015).
- Guriev, Sergei, and Daniel Treisman. "Informational Autocra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 no. 4 (2019): 100-127.
- Han, Joon Hee, et al. "What Silence Reveals: The Quiet Abandonment of Free Health Care in North Korea," *BMJ Global Health* 10, no. 9 (2025).
- Lovett, Jessica. "Turning Science into Fiction? Censoring Population Research in the Soviet Union, 1964-1982,"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33 (2024): 192-211.
- Offer, Avner. "Between the Gift and the Market: The Economy of Regard," *The Economic History Review* 50, no. 3 (1997): 450-476.

3) 기타 자료

- GADM. "GADM Maps and Data." Accessed March 7, 2026. <https://gadm.org>.
- Lee, Jooyung. "The Shadow of Low Birth Rate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38 North, March 7, 2025. <https://www.38north.org/2025/03/the-shadow-of-low-birth-rate-in-north-korea-and-its-implications-for-the-economy/>.
-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Report 2023. New York: UNFPA, 2023.

How Are Centenarians Politically Represented in North Korean Media?

The Expansion of Birthday-Spread Reports and the Visibility of Medical and Administrative Involvement in the Kim Jong Un Era

Lee, Kangmi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s official media repeatedly report cases in which the supreme leader sends a birthday spread to resident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one hundred. In these reports, longevity is presented as evidence of the achievements of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leader's benevolence, and is incorporated into narratives of gratitude and loyalty. This study examines centenarians mentioned in relevant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2 and 2025 and analyzes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reports. The findings show that reports on birthday spreads for centenarians continued throughout the period under study, while the number of reports and recipients increased to a distinctly higher level after 2019. Recipients were initially concentrated in a limited number of regions, but the range of cities and

counties represented in the reports gradually expanded. References to the involvement of medical personnel and local officials also began to appear in the articles. This indicates that on-site medical and administrative involvement was added to the existing narratives of the leader's benevolence, gratitude, and loyal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fter 2019, the administrative scope through which centenarians were identified and made visible as political beneficiaries may have expanded.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how North Korea's official media transform individual longevity and life histories into resources for regime legitimacy.

Keywords: North Korea, centenarians, birthday spreads, political representation, Kim Jong Un era, temporal characteristics, spatial distribution, medical and administrative involvement